



‘사제 대결’ 오랜만이네

이창호-조훈현, 20일 전자랜드배 4강 격돌

내달 6일 이창호-최철한 ‘라이벌전’도 관심

널리 알려진 사실. 냉혹한 승부의 세계에서 스승을 극복하고 황제에 등극한 이창호.

이처럼 딱한 운명에 놓인 사제간 대결은 두 기사들에게는 잔인하지만 팬들에게는 즐거움 그 자체다.

두 기사는 제3기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본선 4강전에서 올해 첫 대면한다. 지난해 국수전과 한국바둑리그에서 만나 두 번 모두 이창호 9단이 승리했다. 두 기사간 통산 전적은 301전으로, 이창호 9단이 183승 118패로 앞서 있다.

53세 노장부훈을 밟아하고 있는 조훈현 9단은 무관의 설움을 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이창호 9단으로서는 외나무 다리 승부에서 승승과의 만남이 부담스럽다. 그러나 목표를 위해서라면 승승이라도 딛고 넘어서야 하는 비정한 승부의 세계를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다.

국내 최고의 라이벌인 이창호-최철한 대국은 말 그대로 빅매

‘신산(神算)’ 이창호 9단의 잇따른 빅매치가 바둑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조훈현 9단-이창호 9단의 사제대결(20일·전자랜드배 4강전)과 이창호-최철한, 숙명의 라이벌전(다음달 6일·불가정보배 8강전)이 잇따라 열린다.

‘조-이’ 사제대결은 무려 30년 동안 화제를 뿐던 조훈현-서봉수의 ‘조-서 라이벌전’ 이후 바둑계의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대국이다.

천하를 호령했던 조훈현 9단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처럼 키운 제자에게 내몰려 자신의 시대를 서둘러 마감한 것은



〈조훈현 9단〉

〈최철한 9단〉

치다. 불가정보배 8강전에서 만난다. 두 기사간 역대 전적은 17승 17패로 유흥상박이다.

‘이창호 길라’ 최철한에게는 이번이 설욕 무대다. 3연패에 도전했던 제49기 국수전 패배의 상처가 너무 커 때문. 최철한은 올해 국수전에서 2승3패로 이창호 9단에게 빼아픈 패배를 당했다.

2004년 당시 도전자 최 9단이 국수 이 9단에게 3승2패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고 지난해엔 이 9단의 도전을 최 9단이 내리 3승으로 물리친 바 있었지만 허리를 옮기면서 얘기가 됐다.

공교롭게도 최 9단은 국수전에서 이 9단에게 일격을 당한 뒤 국대에서 타이틀과 인연을 맺지 못하는 등 무관의 세월을 겪고 있다. 두 기사간 대결에서 흑번 필승이 이어질지도 관심거리. 두 사람은 지금까지 도전기에서만 24번 대결, 흑을 편 쪽이 19번을 이겼다.

제49기 국수전에서도 4국까지 흑을 편 쪽이 모두 이겨 마지막 판에서 누가 흑을 잡느냐가 주목의 대상이었는데 돌을 새로 가려 이창호 9단이 흑을 잡았고 역시 승리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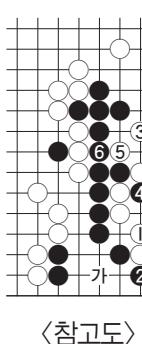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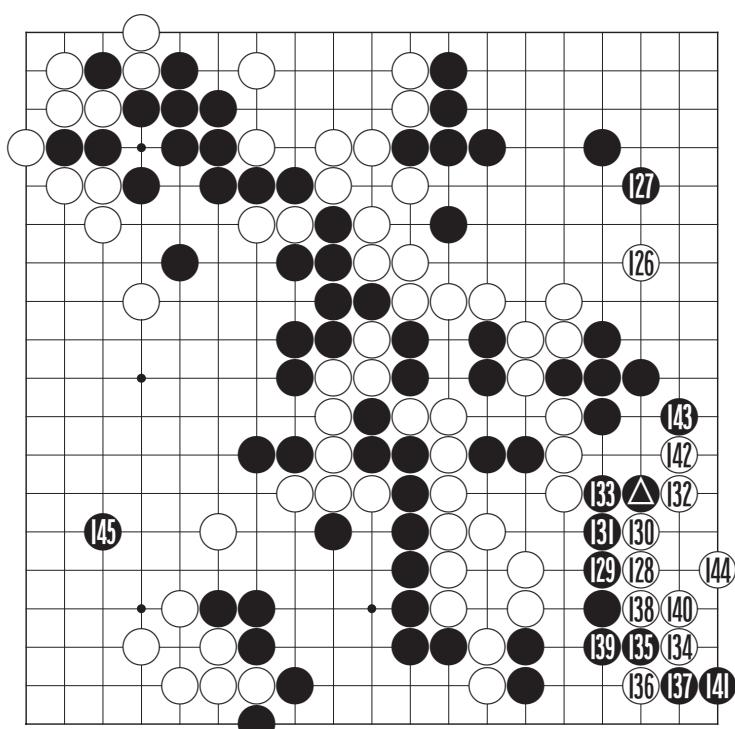
제15회
光日盃
광주 전남 친정비둑대회

白 김형태
(광주시교육청)

최후의 승부처

2회전 제7보(126~145)

黑 박명수
(서광주농협)



대국을 포기 한 듯 하던 박명수 5단이 다시 의욕을 갖고 후시립합 역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장면이다. 국면은 여전히 김형태 5단이 완전히 지

배하고 있다.

흑이 126로 우변을 지키자 백이 126을 선수한 뒤 128로 쳐들어갔다. 당연한 짐입이라 할 수 있다. 이 수가 성공하면 흑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흑 129부터 135까지는 예정된 수순이다. 그런데 136으로 하변을 젖

힌 것이 결과적으로 흑을 도와준 손해수가 되고 말았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백 1로는 뒤 흑 2 때 3으로 뛰는 것이 좋았다. 4에 끊는 것은 5가 선수가 돼 7까지 활로를 찾을 수 있다. 또 이 모양은 우하위 ‘가’의 치중수가 남아 있어 흑이 선택하기 어렵다.

실전은 흑이 141로 내려서서 치

증하는 ‘후환’이 없어졌다. 142도

대실수로 지금이라도 143의 곳에

뛰는 것이 좋았다.

백이 점수를 잃을수록 흑의 희망은 부풀어지고 있다. 144까지 우변 전투가 마무리되자 흑이 145로 좌변에 뛰어들었다. 이 곳이 최후의 승부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오규철 9단·본문 바둑해설위원〉

KT&G 생활의 중심 SK telecom 전남본부

조혜연 7단 “이번엔 기필코...”

여류명인전 승자조 4강전서
이하진 2단 꺾고 결승 진출



조혜연 7단이 여류명인전 타이틀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조 7단은 지난 13일 스카이바둑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8기 여류명인전 승자조 4강전에서 이하진 2단을 누르고 승자조 결승에 진출했다. 조 7단은 364수까지 가는 대접전 끝에 흑 6집 반승을 거뒀다.

승리한 조혜연 7단은 박지은 6단 대하철 3단의 승자조 수위를 놓고 다투게 된다. 패자조로 밀린 이하진 2단은 이다혜 3단과 경합을 벌인다.

루이 나이웨이 9단과 조혜연 7단은 4년째 여류명인전 타이틀을 놓고 간다. 조 7단은 2003년 제5기 대회에서 루이 9단의 벽을 넘고 여자 최강에 등극한 바 있다.

그러나 제7기 대회에서 루이 9단이 조혜연 7단을 꺾고 2연패를 달성하는 등 루이의 독무대가 되고 있다.

8인의 폐자부를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여류명인전은, 토너먼트 승자가 도전권을 획득해 여류명인 타이틀을 보유자와 도전 3번기로 우승자를 가린다.

‘바둑삼국지’ 태극마크를 달아라!

20일 농심라면배 선발전

‘한중동 바둑삼국지’ 제8회 농심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에 출전할 태극전사 선발전이 오는 20일부터 한국기원에서 개최된다.

총 4명을 선발하게 되는 이번 선발전의 가장 큰 특징은 시드 배정에 따른 조별 대국 진행.

한국기원 프로기사 랭킹(6월 1일 발표기준) 상위 20위까지의 기사들은 A조부터 D조까지 4개

조에 분산 배정되며, 나머지 기사들은 주첨에 따라 각 조에 편성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조별 선발 방식에 대해 한국기원의 기전사 업팀 관계자는 “을 조 제7회 대회에서 한국이 우승을 놓친 이후 대표 선발방식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올해에는 상위권 기사들을 각 조에 분산 배정해 선발전에서 강자끼리 만날 가능성을 줄였다”고 말했다.



• 통신카드+신용카드(증정할인 가능)

• 6월 6일부터 상영 금토(2회) 일상영화 4,000원 관람(5/11~6/30)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단, 영화관람 고지에 한함) 3시간 초과시 경상요금 부과★

• ★필수 이동장비 미제한 공짜(매일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엔터 시네마

총장로 5가 228-2700

- 1관 엑스맨3 (124)
- 2관 헛지(더빙)/파파 (134)
- 3관 포세이돈 (124)
- 4관 다빈치 코드 (154)
- 5관 오멘 (154)
- 6관 미션 임파서블 (154)/비밀한거리 (154)
- 7관 다빈치코드 (154)/파파 (154)
- 8관 환생 (154)

• 통신카드+신용카드(증정할인 가능)

• 6월 6일부터 상영 금토(2회) 일상영화 4,000원 관람(5/11~6/30)

• 푸른열기(2회) 2,500원 관람(6월 1일~30일)

• 푸른열기(2회) 2,500원 관람(6월 1일~30일)